

MERITZ

유통/화장품 Weekly



MERITZ
메리츠종금증권

유통/화장품 Analyst 양지혜
02. 6098-6667
jihye.yang@meritz.co.kr

11 월 예상치 못한 따뜻한 겨울

전주 동향

유통

11 월 넷째주 유통업종은 전체 시장 대비 소폭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함. 특히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지원책 등이 발표되면서 BGF 리테일, GS 리테일 등 편의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쿠팡이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2 조 2500 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감으로 주가 하락했던 이마트 또한 아마존의 주가 상승과 함께 반등에 성공함. 한편 소비심리지수 하락과 함께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감으로 롯데쇼핑과 신세계 주가 하락. 11 월 백화점 기준점성장률은 지난해 높은 기저와 따뜻한 날씨로 일시적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

화장품 (생활소비재)

11 월 넷째주 화장품업종 주가는 전체 시장 대비 크게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군제 매출 호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 아모레퍼시픽의 4 분기 면세점 매출 동향은 지난해 낮은 기자를 바탕으로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 대비 높은 수준 (40%대 성장 추정)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중국 현지법인 또한 3 분기 대비 4 분기 외형 성장률이 소폭 회복될 전망. 다만 국내 인건비 및 해외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3 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네오팜, 코스메카코리아, 애경산업 등도 주가 상승을 이어갔음

금주 전망

유통: 국내 소비문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소비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소비심리 위축과 의무휴업 확대 등 정책 불확실성으로 주가 상승폭 제한될 수 있겠음. 배당 메리트 높은 종목군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는 판단임.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주가 모멘텀은 기준점성장률 (점당 매출액 증감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함. 경기 둔화로 구매건수 (Q)가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구매단가 (P) 상승이 전사 실적 개선의 Key Factor로 작용할 전망. 중국인 입국자 수 회복 및 국내 소비 양극화로 해외명품 중심의 상위 계층 백화점 소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전망.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점주의 제도적 환경 개선 기대

화장품: 단기 반등 국면, 실적 개선 종목으로 압축 필요

단기 주가 반등 국면을 지나면서 4 분기 및 2019년 실적 개선 종목들을 중심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겠음. 11 월 화장품 수출 잠정실적은 +9.4% YoY 증가하였음. 최근 중국 소매판매액 증가가 둔화되고 있어 중국 정부의 내수 소비부양을 위한 정책 발표 (세제 혜택, 시장 개방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국인 입국자 수 또한 꾸준히 회복되고 있으며 중국 인바운드 소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겠음. 중국 화장품 시장의 핵심 트렌드는 밀레니얼과 Z 세대 소비임. 왕홍 상품과 신규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다양한 개성을 추구함. 또한 구조적인 중국 밀레니얼 세대의 프리미엄 소비 성향 강화로 럭셔리 화장품의 높은 성장이 지속될 전망

관심 종목

유통

호텔신라 (008770):

국내 상위 면세점 과점화 구도 형성. 해외사업에서의 의미있는 순익 개선 주목. 중국 밀레니얼 세대의 럭셔리 소비 확대로 중국 경기 우려 및 웨이상 둔화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업종 내 실적 우위 예상

화장품 (생활소비재)

LG 생활건강 (051900):

중국 중산층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동사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판단. 프레스티지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M&A를 통한 신규 카테고리의 초기 시장 선점으로 차별화된 성장 지속될 전망

GS 리테일 (007070):

하반기 기준점성장률 회복되면서 자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 지속될 전망. MD 개편을 통한 편의점과 슈퍼의 통합 구매, HMR 및 즉석식품 카테고리 확대 및 차별화된 PB 상품 출시 등을 강화함

코스메카코리아 (241710):

VT 코스메틱 등 신규 고객사들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높은 외형 증가 지속될 전망. 잉글우드랩 인수와 중국 현지법인 신규 Capa 확장으로 2019년 해외 성장 모멘텀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종목 및 산업코멘트

탐방	이슈
<p>코스맥스 (1928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전략 방향: 2017년부터 글로벌 확장을 핵심 목표로 진행. 2019년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각국 로컬 기업들과 동반 성장해 나가고자 함. 중국에서는 다소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한류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 러시아, 미국,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 2019년 가이던스: 전사 25% 성장 목표 1) 국내법인 10~15% 성장 2) 중국법인 30% 성장 3) 미국법인 기존 오하이오 50~60% 성장, 누월드를 포함하여 BEP 손익분기점 달성을 기준 인센티브 제도를 매출과 이익 5:5 배분에서 향후 4:6으로 이익 개선에 집중할 계획 중국 3~4선도시 등에서의 추가 증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확대에 따른 현금 흐름 우려감으로 주가 조정. 단기적인 증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2021년 정도 추가 증설 예상. 2019년에는 기존 인센티브 제도를 매출과 이익 5:5 배분에서 향후 4:6으로 이익 개선에 집중할 계획 <p>한국콜마 (16189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분기 연결자회사 중국 현지법인과 CKM (구, CJ헬스케어)의 이익 정상화로 실적 개선 전망. 지난해 4분기부터 북경콜마 회계적 비용 처리 이슈로 수익 부진하였음. 10월 높은 매출 성장과 함께 신규 가동중인 무석콜마 30억원 소폭 손실 감안하더라도 BEP 수준 달성을 예상. CKM 또한 백신 제품 추가로 매출 회복 전망 2020년까지 연평균 22%의 높은 성장 지속될 전망. 2019년 가이던스 국내화장품 +11.4% 성장, 국내제약 +4~5% 성장, 중국 현지법인 (북경+무석) +50% 성장한 매출액 1,200억원. 영업이익률 3% 목표, CKM (구, CJ헬스케어) +61% 증가한 매출액 5,400억원 예상 (참고 2018년 2분기부터 편입) 향후 중국 현지법인의 높은 성장성이 회복되고 CJ헬스케어 인수 이후 제약 사업에서 의미있는 시너지가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p>10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마트 -14.3%, 백화점 +1.2%, 편의점 +4.7%, SSM +1.0%, 온라인판매증가 +27.2%, 온라인판매 +31.1% 기록 백화점 구매건수 -4.3%, 구매단가 +5.8% / 편의점 구매건수 +2.7% YoY, 구매단가 +1.9% 대형마트 구매건수 -11.4%, 구매단가 -3.3% / SSM 구매건수 -1.3%, 구매단가 +2.3% YoY 증가 추석시점 차이로 대형마트 매출액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증가 모두 연휴 이후 배송 정상화와 지난해 낮은 기저효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백화점 기존점성장률은 점포의 상권별 특성과 해외명품 성장률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는 판단임. 10월 롯데 1.5%, 현대 5%, 신세계 7%를 기록하였으며 전반적인 소비 경기 둔화에도 해외명품은 10월 +12.1% YoY 증가하여 두 자릿수 성장이 지속됨 11월 기준점성장률은 백화점 -2~0%, 대형마트 -3~-5%, 편의점 2% (일반상품 기준, 담배는 업체별 차별화) 수준이 예상됨. 백화점은 지난해 패딩의 높은 기저 효과와 따뜻한 겨울 날씨로 11월 부진하였으며 해외명품의 높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편의점 일반상품 기준 기준점성장률이 10월 대비 회복될 전망
<p>예정 이벤트 (실적발표/IR 등)</p>	

실적발표	I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롯데지주 애널리스트 간담회 12/5

유통 주요 뉴스

소비자심리지수도 '뚝'…깊어지는 불황에 교육비까지 줄인다: 국민의 소비 심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음.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자 소비자들이 여행비, 옷 값은 물론 교육비까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음.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2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음.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8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 (CCSI)는 96.0으로 전월보다 3.5포인트 하락했음.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 (한국경제 11/28)

신세계그룹 CEO 인사…온라인·화장품사업 키운다: 신세계그룹이 아울렛, T카마스, 온라인 등 신규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임원 정기인사를 30일 단행했음. 주력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실적이 정체되거나 소폭 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캐시카우'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음.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코스메틱 부문 대표 자리를 신설해 이길한 글로벌 2본부장에게 맡겼음. 기준 차 대표는 전체 총괄 및 패션라이프스타일 부문을 이끌 예정 (한국경제 12/1)

반려동물 시장 선점나선 GS그룹…GS리테일, 펫초비 지분 25% 취득: GS그룹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오는 2020년 5조 8,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최근 반려동물 용품 전문 업체인 (주)펫초비 지분 24.6%를 50억원에 사들였음. 펫초비는 반려동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 개와 고양이 관련 용품만 유통한다. 2012년 반려동물 먹이를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시작해 쇼핑몰로 발전시켰음. 펫초비는 3~4분기 매출 41억원, 영업손실 2억원을 기록했음 (서울경제 11/26)

연매출 5억~10억 편의점, 수수료 부담 年214만원 줄어: 26일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의 핵심은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음.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는 우대가맹점 기준을 기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크게 늘렸음. 금융위는 대표 업종이 받게 될 이익도 추산해 발표했음. 연 매출액 5억~10억원에 해당하는 1만5000개 편의점은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214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음. 연 매출액 10억~30억원인 편의점은 한 곳당 연간 약 156만원 정도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임. 음식점은 연 매출액 5억~10억원대가 매년 약 288만 원, 10억~30억원인 음식점은 연간 약 343만원의 수수료를 덜 내도 될 것으로 계산됐음. 슈퍼마켓•제과점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연 매출액 5억~10억원이면 각각 연간 약 279만~322만원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연 매출액 10억~30억원인 자영업자는 연간 약 312만~41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매일경제 11/26)

편의점 간 출점 거리제한 100m 될 듯, 업계 자율협약 통해 담배 소매점간 기준 적용: 편의점 간 출점 거리 제한이 업계의 자율협약으로 다음달 도입됨. 거리 기준은 자율협약에 명시되지 않지만 담배 소매점 간 기준인 100m가 될 것으로 알려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업계 자율규약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 편의점 가맹점 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음 (한국경제 11/28)

화장품(생활소비재) 주요 뉴스

화장품 中수출 쉬워진다…“허가 절차 간소화”: 중국에서 이달 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평균 6~8개월이 걸렸음. 그러나 지난 10일 이후부터는 일반화장품은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될 전망.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에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데일리 11/12)

에스티로더, 올해 3분기까지 매출 17% 증가, 스킨케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행 소매업 매출 증가 견인: 에스티로더는 2018년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5억 200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 특히 그룹 매출은 7월과 9 월간 35억 2,400만 달러로 2017년 동기 대비 8% 증가. 세전이익은 15 % 증가, 최대 6억 3,300만 달러 (5억 7,700만 유로, 한화 약 7,168억 7,250만 원)를 기록했음. 제품별로 스킨케어는 매출액의 17%를 차지해 1분기 동안 에스티로더 매출을 14억 8,600백만 달러 (13억 700만 유로, 한화 약 1조 6,828 억 9,500만 원)로 끌어 올렸음.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카테고리도 7 월과 9월 사이에 각각 2%와 5%로 성장했음. 반면, 향수 카테고리는 매출이 둔화되면서 1% 하락.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첫 3개월 동안 매출액을 24% 증가시켰음 (코스인코리아 11/26)

스킨푸드, 주요제품 생산 재개 영업 정상화 박차, 27일부터 40여종 90만개 제품 생산 유동성 회복 발판 마련: 지난달 10일 생산 중단 이후 40여일만으로 제품 생산은 27일부터 본격 재개. 주요 인기 품목에 대한 일본 및 국내 일부 거래선의 조속한 공급 요청이 있었고, 이에 선입금을 받고 상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납품은 생산 재개 시점 약 2~4주 뒤부터 가능할 전망. 회사 측은 이번에 선입금 분을 우선 조달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매장으로의 제품 공급도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지속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생산을 진행하는 한편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회사 측은 국내 또는 해외 법인의 자분을 매각하거나, 해외 영업권 양도를 통한 자금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음 (CMN 11/27)

LG생활건강, 2019년 정기 임원인사, CFO 및 CTO 교체, 럭셔리화장품 이형석 전무 프리미엄화장품 이우경 전무 아시아사업총괄 김병열 전무 선임: LG생활건강이 28일 부사장 승진 전입 1명, 전무 승진 2명, 상무 승진 6명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음.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인사를 통해 중국 화장품 사업을 종합하면서 후 브랜드를 중심으로 럭셔리 화장품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김병열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음. 화장품 연구소장으로서 차세대 럭셔리 브랜드 제품개발과 함께 기술개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박선규 상무 역시 전무로 승진했음. 한편 홍범식 베인&컴퍼니 코리아 대표가 (주)LG 경영전략팀장(사장)으로 영입되었음. LG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M&A를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판단됨 (CMN 11/29)

주요종목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원)	시가총액 (십억원)	PER(X)		PBR(X)		ROE(%)	
					2018C	2019C	2018C	2019C	2018C	2019C
유통	롯데쇼핑	A023530	215,500	6,096	146.4	13.4	0.5	0.5	0.3	3.6
	현대백화점	A069960	93,900	2,197	8.6	8.2	0.5	0.5	6.3	6.3
	신세계	A004170	291,000	2,865	11.0	9.6	0.8	0.7	7.4	7.9
	GS홈쇼핑	A028150	195,600	1,284	9.2	10.6	1.1	1.0	12.9	10.6
	현대홈쇼핑	A057050	99,800	1,198	9.1	8.8	0.7	0.7	8.3	8.0
	이마트	A139480	195,000	5,436	11.2	11.0	0.6	0.6	5.9	5.6
	GS리테일	A007070	38,000	2,926	19.5	17.0	1.4	1.3	7.3	7.9
	BGF리테일	A282330	194,500	3,362	21.2	18.8	6.4	4.9	34.6	30.3
	롯데하이마트	A071840	52,400	1,237	8.3	7.7	0.6	0.6	7.2	7.4
	호텔신라	A008770	86,300	3,387	21.3	17.5	4.0	3.3	21.7	22.2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A090430	172,500	10,084	31.0	25.1	2.7	2.5	8.9	10.2
	아모레G	A002790	64,900	5,352	31.4	26.2	1.7	1.6	5.9	6.6
	LG생활건강	A051900	1,160,000	18,117	29.0	25.2	5.5	4.6	22.0	21.2
	코스맥스	A192820	136,000	1,367	36.7	24.3	5.4	4.4	15.4	20.6
	한국콜마	A161890	68,500	1,531	35.3	20.0	4.3	3.4	11.8	19.2
	코스메카코리아	A241710	33,650	359	22.5	17.1	2.7	2.4	13.1	14.6
	연우	A115960	21,850	271	27.1	19.0	1.4	1.3	5.3	7.5
	애경산업	A018250	51,300	1,347	18.3	14.8	7.3	5.0	46.2	38.1
	잇츠한불	A226320	28,450	624	43.9	22.7	1.1	1.1	4.7	6.2
	에스디생명공학	A217480	9,750	219	13.1	10.1	1.8	1.6	14.9	16.9
	클리오	A237880	12,700	215	29.1	17.9	1.5	1.4	5.4	8.3
	신세계인터넷내셔널	A031430	174,000	1,242	24.0	17.2	2.3	2.0	10.0	12.7
	네오팜	A092730	49,450	369	24.9	19.3	6.0	4.8	28.1	28.9
생활소비재	코웨이	A021240	78,400	5,786	15.9	14.4	5.1	4.5	34.7	32.8
	쿠쿠홈시스	A284740	177,000	794	16.4	12.8	2.0	1.8	13.0	14.8
	뉴트리비아오텍	A222040	15,300	316	51.7	23.9	3.5	3.0	7.3	15.1
	콜마비안에이치	A200130	20,400	603	13.3	10.9	2.9	2.3	24.0	23.6

자료: Quantwise,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해외 업체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각국통화)	시가총액 (백만달러)	PER(X)		PBR(X)		ROE(%)	
					2018C	2019C	2018C	2019C	2018C	2019C
유통	월마트	WMT US	98	283,699	20.2	20.6	3.7	3.7	14.3	18.1
	아마존 딪컴	AMZN US	1,690	826,440	62.1	47.5	18.9	13.3	26.2	25.2
	세븐 & 아이 홀딩스	3382 JP	4,943	38,558	20.6	17.7	1.7	1.6	8.6	9.3
	노드스트롬	JWN US	53	8,930	14.7	14.0	7.4	6.6	54.7	49.2
	베스트 바이	BBY US	65	17,534	12.4	11.7	5.7	5.4	43.2	46.7
	중국국여여행사	601888 CH	55	15,490	29.8	23.7	6.4	5.4	22.3	23.1
화장품	로레알	OR FP	208	131,814	29.4	27.4	4.4	4.1	15.2	15.2
	에스티 로더	EL US	143	51,765	29.4	26.5	11.6	10.5	38.2	43.5
	시세이도	4911 JP	7,224	25,428	38.0	31.1	6.1	5.3	17.5	19.1
	상하이자화	600315 CH	27	2,568	34.2	27.2	3.1	2.8	8.9	10.5
	LVMH	MC FP	253	144,335	19.8	18.2	3.9	3.4	20.5	19.9
	P&G	PG US	95	235,463	21.5	20.1	4.5	4.5	22.5	22.2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종목 기간별 수익률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롯데쇼핑	(3.6)	10.5	20.1	(0.2)	2.6	8.3	(5.5)	6.4	29.2	12.7	18.0	23.3
	현대백화점	2.6	11.5	(3.7)	(11.8)	(4.0)	(10.1)	0.7	7.4	5.4	1.1	11.3	4.9
	신세계	(2.7)	13.9	(8.4)	(35.6)	1.4	(3.0)	(4.6)	9.8	0.8	(22.6)	16.7	12.0
	GS홈쇼핑	0.9	(5.0)	(5.1)	14.5	(8.2)	(9.8)	(1.0)	(9.1)	4.0	27.4	7.1	5.2
	현대홈쇼핑	3.7	2.4	(10.9)	(5.4)	(23.5)	(17.2)	1.8	(1.7)	(1.8)	7.6	(8.2)	(2.2)
	이마트	4.6	0.3	(9.1)	(25.0)	(28.7)	(28.0)	2.7	(3.8)	0.0	(12.0)	(13.4)	(13.0)
	GS리테일	5.0	1.6	2.8	1.2	(3.8)	(5.7)	3.1	(2.5)	12.0	14.2	11.5	9.3
	BGF리테일	6.3	10.5	14.4	9.6	N/A	(7.4)	4.4	6.4	23.5	22.5	N/A	7.6
	롯데하이마트	(1.7)	(7.9)	(26.5)	(32.9)	(30.7)	(24.0)	(3.6)	(12.0)	(17.4)	(20.0)	(15.4)	(8.9)
	호텔신라	2.4	21.0	(18.6)	(30.4)	1.9	1.7	0.5	17.0	(9.5)	(17.4)	17.2	16.7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2.8	10.2	(34.8)	(47.7)	(44.2)	(43.4)	10.8	6.1	(25.7)	(34.8)	(28.8)	(28.3)
	아모레G	6.4	4.5	(32.7)	(47.7)	(56.0)	(54.0)	4.5	0.4	(23.6)	(34.7)	(40.7)	(39.0)
	LG생활건강	1.7	9.6	(8.2)	(13.3)	(1.1)	(2.4)	(0.2)	5.6	1.0	(0.3)	14.2	12.6
	코스맥스	4.2	18.8	(10.5)	(17.6)	8.8	16.2	2.3	14.7	(1.4)	(4.6)	24.1	31.3
	한국콜마	7.5	23.9	(7.4)	(8.8)	(20.7)	(16.5)	5.6	19.8	1.7	4.2	(5.4)	(1.4)
	코스메카코리아	4.2	26.0	1.1	(3.7)	8.6	3.5	2.3	22.0	10.2	9.2	23.9	18.6
	연우	8.7	14.1	(21.1)	(24.0)	(33.1)	(27.4)	6.8	10.0	(12.0)	(11.0)	(17.8)	(12.4)
	애경산업	2.0	30.2	(31.2)	1.2	N/A	N/A	0.1	26.1	(22.1)	14.1	N/A	N/A
	잇츠한불	2.3	13.4	(36.8)	(47.6)	(44.1)	(37.3)	0.4	9.3	(27.7)	(34.7)	(28.8)	(22.3)
	에스디생명공학	(3.9)	11.7	(27.2)	(43.0)	(24.4)	(33.7)	(5.9)	7.6	(18.1)	(30.0)	(9.1)	(18.7)
	클리오	8.1	17.6	(25.7)	(51.2)	(68.0)	(65.4)	6.2	13.5	(16.6)	(38.2)	(52.7)	(50.4)
	신세계인터내셔날	(4.1)	17.2	(13.4)	3.0	141.0	134.8	(6.0)	13.1	(4.3)	15.9	156.3	149.8
	네오팜	8.9	28.9	(0.9)	(8.9)	27.8	4.9	7.0	24.9	8.2	4.0	43.1	19.9
생활소비재	코웨이	4.0	15.3	(14.8)	(7.8)	(18.3)	(19.8)	2.1	11.2	(5.7)	5.2	(2.9)	(4.7)
	쿠쿠홈시스	3.8	9.3	(19.9)	(24.4)	N/A	N/A	1.9	5.2	(10.8)	(11.4)	N/A	N/A
	뉴트리비아오텍	(1.0)	17.7	(21.5)	(37.0)	(27.7)	(30.1)	(2.9)	13.6	(12.4)	(24.1)	(12.3)	(15.1)
	콜마비앤에이치	(0.2)	(13.6)	(22.4)	(22.4)	(36.1)	(37.3)	(2.2)	(17.6)	(13.3)	(9.5)	(20.7)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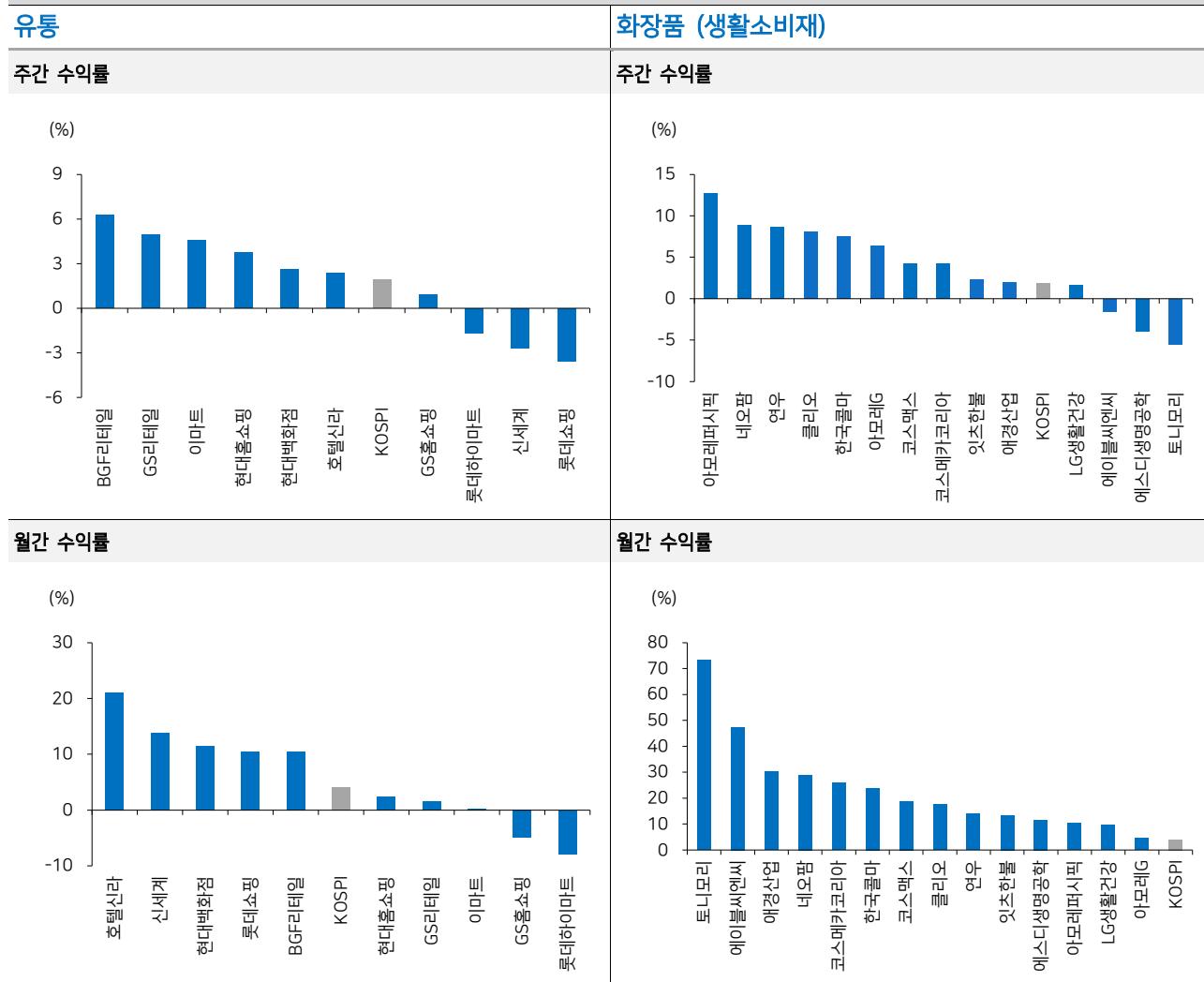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요 업체 기간별 수익률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월마트	2.7	(3.6)	1.9	17.7	0.3	(1.1)	(2.2)	(5.0)	6.7	16.7	(4.2)	(4.4)
	아마존 닷컴	12.5	1.5	(16.0)	3.0	45.4	44.5	7.7	0.1	(11.2)	2.0	40.9	41.3
	세븐 & 아이 홀딩스	(0.9)	0.5	9.2	3.2	7.1	5.6	(4.2)	0.0	10.8	2.3	9.1	7.4
	노드스트롬	2.6	(20.5)	(15.9)	6.6	16.2	11.6	(2.3)	(21.8)	(11.0)	5.7	11.7	8.3
	베스트 바이	3.3	(10.2)	(18.8)	(6.2)	7.0	(5.7)	(1.6)	(11.5)	(13.9)	(7.1)	2.6	(8.9)
	중국국여여행사	1.3	(5.2)	(12.9)	(18.2)	32.7	27.2	1.0	(1.9)	(8.0)	(2.3)	54.7	49.0
화장품	로레알	0.7	3.4	0.6	0.5	12.6	12.4	(0.4)	5.3	8.2	9.0	18.5	18.2
	에스티 로더	1.8	(0.3)	1.8	(3.9)	14.3	12.1	(3.0)	(1.7)	6.7	(4.8)	9.9	8.9
	시세이도	(3.2)	(6.6)	(7.7)	(15.0)	32.5	32.6	(6.5)	(7.1)	(6.1)	(15.8)	34.6	34.5
	상하이자화	(1.3)	(1.4)	(9.6)	(38.6)	(27.2)	(27.9)	(1.7)	1.9	(4.7)	(22.8)	(5.2)	(6.1)
	LVMH	(2.3)	(9.5)	(16.3)	(16.3)	3.8	2.9	(3.4)	(7.6)	(8.8)	(7.9)	9.7	8.7
	P&G	3.2	5.2	13.9	28.7	4.6	2.9	(1.6)	3.9	18.8	27.7	0.1	(0.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종목 기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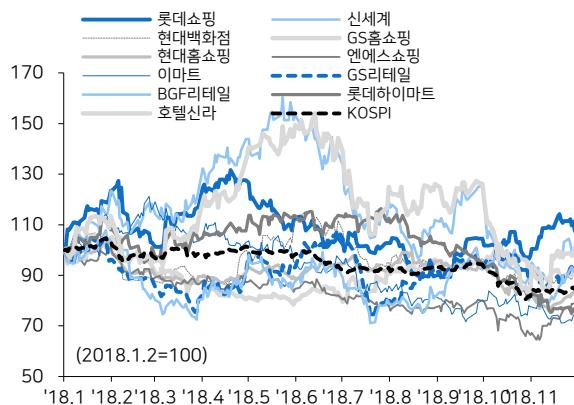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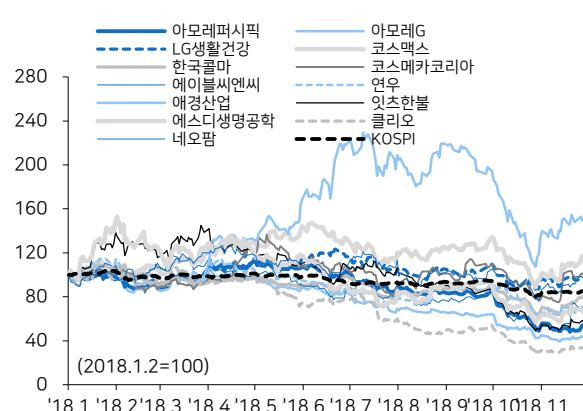
유통

연초 이후 상대지수 추이



화장품 (생활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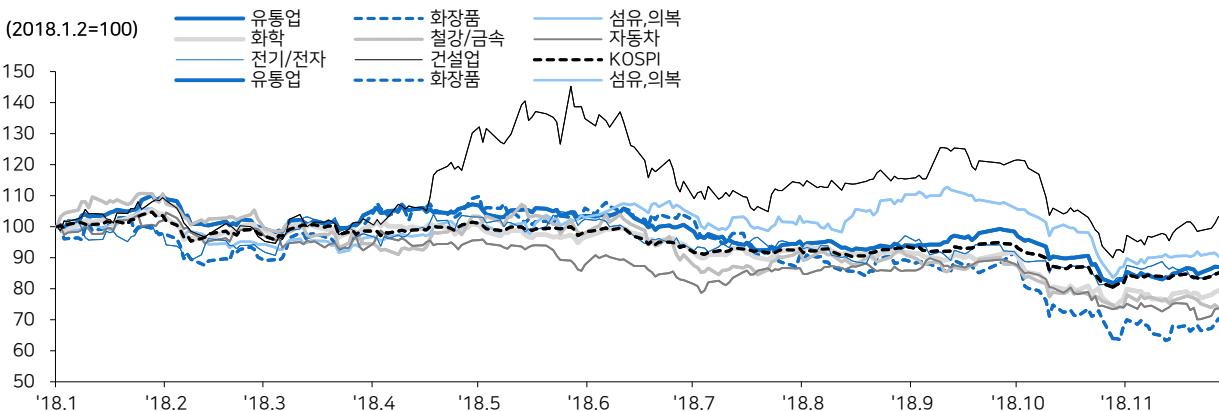
연초 이후 상대지수 추이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업종별 지수 추이

(2018.1.2=100)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소비 주요지표

Monthly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소비지출전망 CSI	107	108	109	109	109	108	108	107	108	107	105	106	111	111
가계수입전망 CSI	103	104	104	104	105	103	103	102	101	101	99	98	101	99
소비심리지수	107.7	109.2	112.3	110.9	109.9	108.2	108.1	107.1	107.9	105.5	101.0	99.2	100.2	99.5
소비자물가지수(% YoY)	2.1	1.8	1.3	1.5	1.0	1.4	1.3	1.6	1.5	1.5	1.5	1.4	1.9	2.0
가계대출 증감률(% YoY)	8.3	7.9	7.4	7.3	7.5	7.3	7.2	7.3	7.0	6.8	6.5	6.3	6.1	
주택담보대출 증감률(% YoY)	7.4	6.9	6.1	5.9	6.1	5.9	5.8	5.5	5.2	4.9	4.6	4.5	4.3	
WTI (\$/B)	51.7	54.4	57.4	60.4	64.7	61.7	64.9	68.6	67.0	73.5	68.8	69.8	73.3	65.3
KOSPI (pt)	2,394.5	2,523.4	2,476.4	2,467.5	2,566.5	2,427.4	2,445.9	2,515.4	2,423.0	2,326.1	2,295.3	2,322.9	2,343.1	2029.7
원/달러	1,145.4	1,120.3	1,088.0	1,067.4	1,068.0	1,082.8	1,063.5	1,068.0	1,077.7	1,114.5	1,118.7	1,113.1	1,109.3	1142.0.1
원/위안	172.1	168.7	164.5	164.0	169.6	171.1	169.7	169.2	168.4	168.2	163.7	163.2	161.5	163.9
기준금리 (%)	1.25	1.25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소매판매액 증감률 (% YoY)	8.3	1.0	6.4	2.7	2.0	7.9	7.9	6.7	5.9	5.5	7.2	7.8	3.0	
내구재	19.1	-3.2	11.8	-0.7	16.3	0.6	9.3	9.9	5.7	1.2	5.4	8.3	-10.6	
승용차	22.3	-10.9	6.3	-13.6	18.9	-1.9	5.8	15.0	10.1	-1.1	12.8	9.8	-17.9	
가전제품	10.1	8.0	18.9	15.8	25.6	17.0	23.4	19.6	7.3	8.2	9.9	18.5	5.1	
통신기기 및 컴퓨터	26.1	1.6	27.3	17.1	12.3	-0.4	8.4	-9.5	-5.1-	-6.3	-12.6	1.9	-17.2	
가구	0.2	-19.0	-8.7	-4.3	-1.8	-10.8	4.5	7.9	5.7	4.2	1.6	4.7	4.0	
준내구재	3.4	-2.8	4.7	2.9	-0.8	4.9	12.9	3.8	8.0	10.1	9.3	7.6	9.5	
의복	3.0	-3.6	5.2	1.9	-8.2	1.0	10.0	-2.2	3.8	5.7	5.3	6.9	9.5	
신발 및 가방	3.5	-1.8	7.0	3.9	8.7	6.4	17.0	12.1	12.4	17.8	12.4	2.1	9.7	
오락, 취미, 경기용품	4.4	-1.1	5.7	3.4	10.9	16.2	14.1	11.7	16.2	16.9	18.8	12.2	10.0	
비내구재	5.9	4.9	4.6	4.3	-2.5	12.6	5.0	6.5	5.1	5.9	7.2	7.6	6.6	
음식료품	3.8	7.9	2.6	1.5	-13.0	23.2	4.1	4.8	3.0	4.0	3.5	5.0	8.7	
의약품	7.1	-5.2	-2.3	-3.3	0.4	0.2	-0.9	2.4	3.6	2.2	5.0	4.5	-0.4	
화장품	9.9	2.0	11.2	6.8	8.8	2.8	20.8	29.1	21.3	19.7	24.0	23.2	10.9	
서적, 문구	6.8	-0.6	7.2	7.9	13.3	10.2	8.3	7.4	4.3	3.3	10.6	4.2	1.1	
차량연료	8.7	5.9	7.1	9.8	3.9	6.9	3.2	5.0	7.6	10.8	15.3	14.8	9.2	

주: WTI, KOSPI, 환율은 월말 종가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Quarterly	4Q15	1Q16	2Q16	3Q16	4Q16	1Q17	2Q17	3Q17	4Q17	1Q18	2Q18	3Q18
민간소비 증감률(% YoY)	1.4	(0.1)	0.8	0.6	0.2	0.4	1.0	0.8	1.0	0.6	0.3	0.6
도시근로자 소득 증감률(% YoY)	(0.5)	0.9	0.9	0.6	0.2	0.7	-2.2	0.1	0.5	5.3	7.5	6.7
도시근로자 소비지출 증감률(% YoY)	(0.5)	(0.6)	0.6	0.7	(2.2)	-	-	-	-	-	-	-
가계신용잔액 증감률(% YoY)	10.9	11.4	11.1	11.3	11.6	11.1	10.4	9.5	8.1	8.0	7.6	6.7
가계대출 증감률(% YoY)	11.0	11.5	11.2	11.5	11.5	11.0	10.2	9.2	7.9	7.9	7.4	6.4
주택담보대출 증감률(% YoY)	6.6	6.0	10.4	10.6	11.2	10.5	8.7	7.4	5.9	5.8	4.9	4.3
판매신용 증감률(% YoY)	8.2	10.5	10.8	7.0	11.6	12.0	13.6	14.9	11.1	11.0	11.0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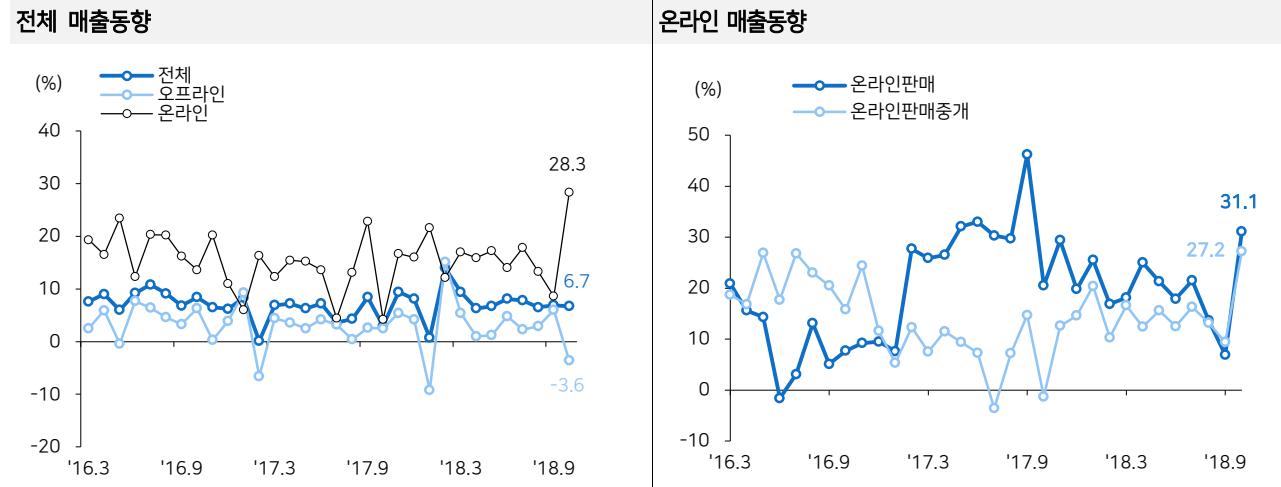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소매판매

(% YoY)	2017년							2018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체소매판매	11.0	10.4	10.1	10.3	10.0	10.2	9.4	9.7	10.1	9.4	8.5	9.0	8.8	9.0	9.2	8.6
일정규모이상	10.2	8.6	7.5	7.8	7.2	7.8	6.7	8.3	9.0	7.8	5.5	6.5	5.7	5.9	5.6	3.7
음식료	10.6	10.3	7.6	7.8	9.6	6.8	8.5	9.5	10.7	8.6	6.8	12.7	8.6	9.2	12.5	6.5
섬유의복	7.3	6.4	8.9	6.2	8.0	9.5	9.7	7.7	14.8	9.2	6.6	10.0	8.7	7.0	9.0	4.7
화장품	17.0	12.7	14.7	13.4	16.1	21.4	13.8	12.5	22.7	15.1	10.3	11.5	7.8	7.8	7.7	6.4
귀금속	6.3	2.6	6.4	5.3	2.5	4.4	0.4	3.0	20.4	5.9	6.7	7.9	8.2	14.1	11.6	4.7
일용품	11.2	7.1	7.0	7.8	7.4	7.9	5.4	10.1	16.9	12.0	10.3	15.8	11.3	15.8	17.4	10.2
스포츠, 레저	29.1	26.6	14.9	13.1	19.6	15.4	2.2	-3.6	12.3	6.6	-5.1	-4.2	-8.2	-1.5	-1.5	-8.5
서적	12.3	-3.0	4.6	12.3	6.5	2.9	8.3	-13.3	9.7	-3.2	11.1	35.8	18.4	11.7	21.6	7.4
가전제품	13.3	13.1	8.4	6.8	5.4	8.4	8.7	9.2	15.4	6.7	7.6	14.3	0.6	4.8	5.7	4.8
종의약	13.6	13.0	11.4	14.6	11.9	11.0	13.5	10.1	10.9	8.2	8.0	8.5	9.9	7.4	8.9	11.5
사무용품	16.4	10.8	5.8	4.4	6.4	9.5	12.7	-0.9	12.6	18.3	8.1	3.5	1.8	5.4	4.9	-3.3
가구	14.8	12.4	11.3	15.5	10.0	11.9	12.5	8.5	10.9	8.1	8.6	15.0	11.1	9.5	9.9	9.5
통신	18.5	7.9	12.2	3.8	2.1	33.9	13.4	10.7	1.6	10.8	12.2	16.1	9.6	6.4	16.9	7.1
석유제품	4.2	5.6	4.5	8.5	8.2	10.4	10.6	9.1	9.1	13.3	14.0	16.5	18.4	19.6	19.2	17.1
건축재	15.2	13.1	8.8	9.5	6.1	3.6	5.2	6.8	10.2	11.4	6.5	7.2	5.4	7.9	8.4	8.5
자동차	9.8	8.1	7.9	7.9	6.9	4.2	2.2	9.7	3.5	3.5	-1.0	-7.0	-2.0	-3.2	-7.1	-6.4
기타	7.9	5.0	0.1	0.3	-3.3	-1.7	0.3	0.3	1.7	3.4	-1.0	1.0	-1.8	1.3	-0.8	1.7

자료: CEI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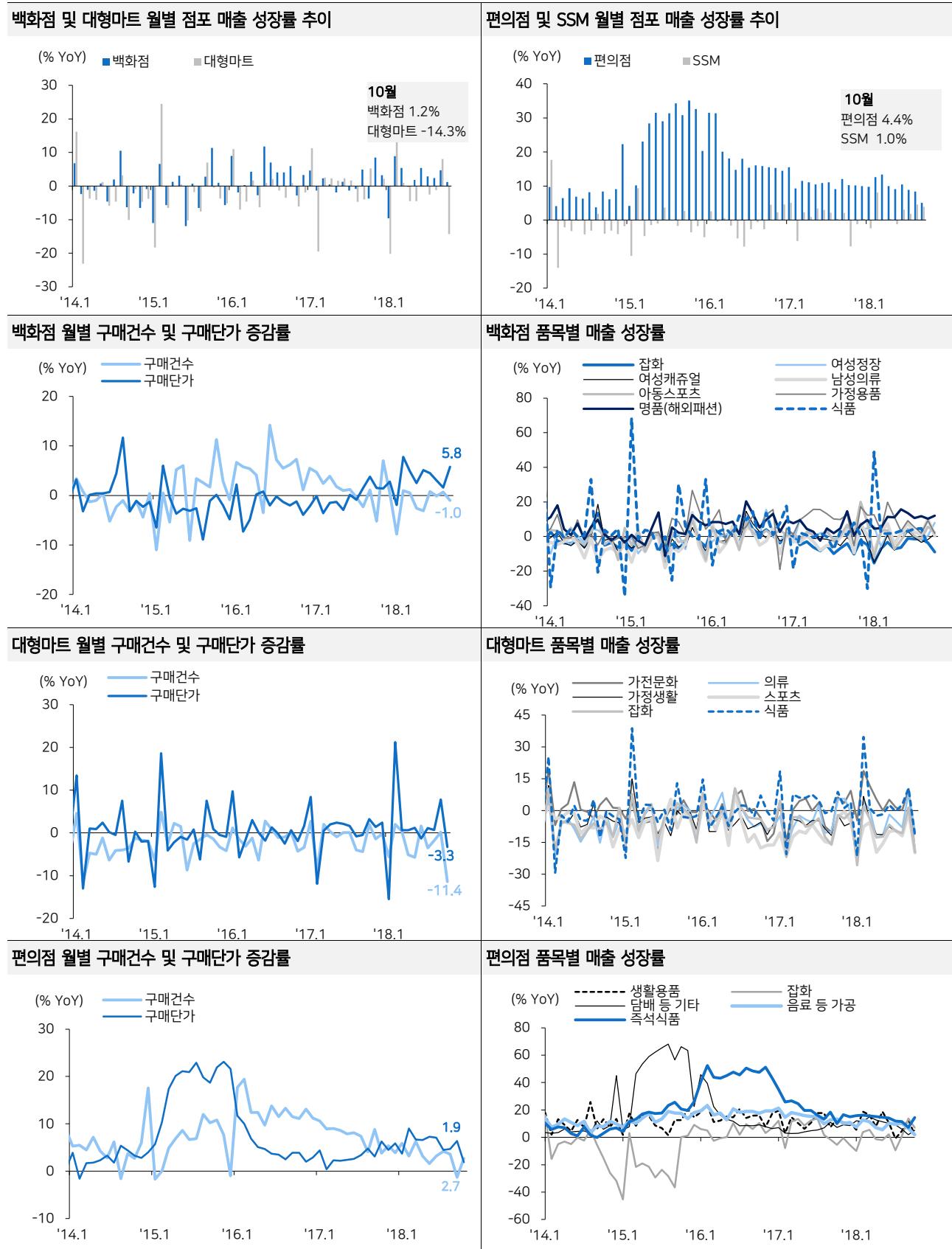
유통업체 매출동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온라인판매증가 –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온라인판매 – 이마트, 신세계, AK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위메프, 티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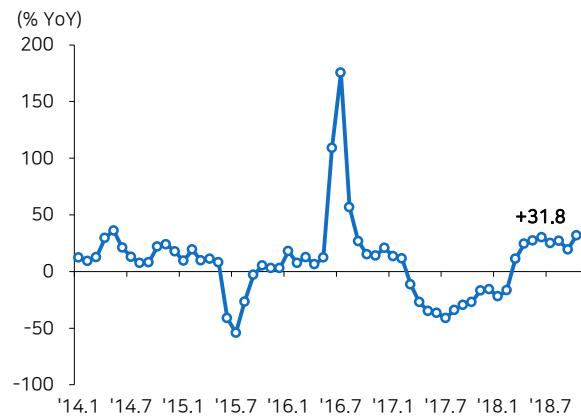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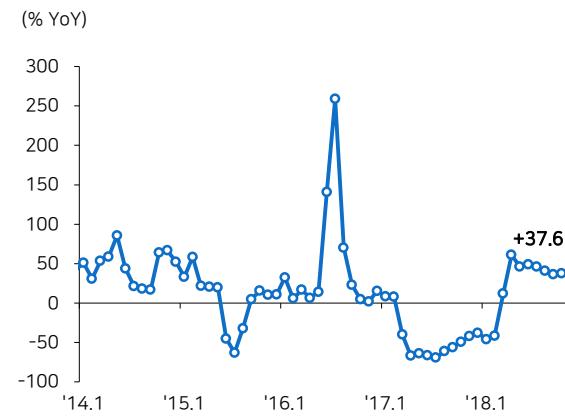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중국 인바운드 동향 점검

한국에 입국하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감률: 10월 +31.8%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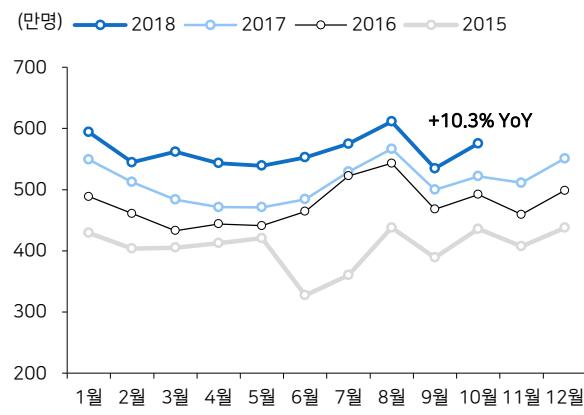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감률 추이: 10월 +37.6%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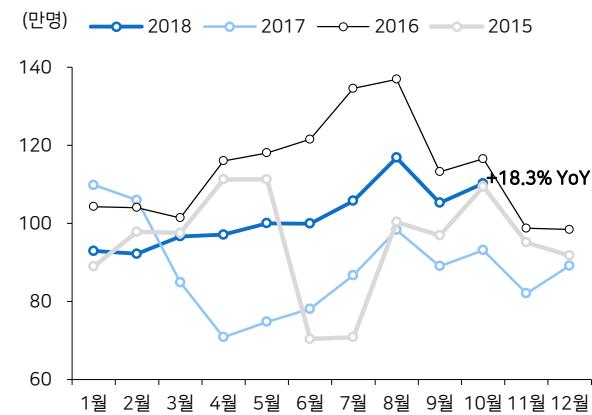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인천공항 국제선 합산 여객 수송 월별 추이: 10월 +10.3% YoY



인천공항 국제선 중국 여객 수송 월별 추이: 10월 +18.3% YoY



자료: 인천공항공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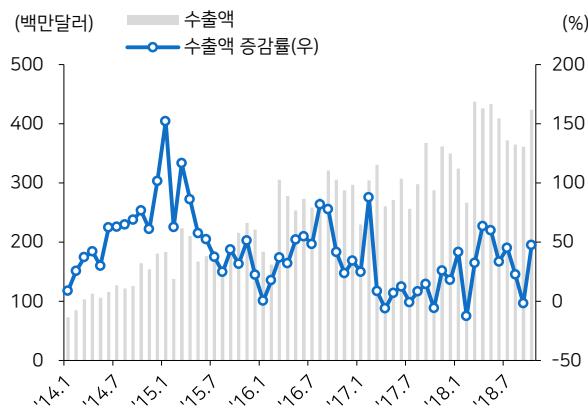
월별 및 연간 면세점 동향

(천명, 천달러, %)	내국인				외국인				합계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2016년 07월	2,413		267,849		1,917		637,508		4,330		905,357	
2016년 08월	2,558		285,522		1,900		682,417		4,459		967,939	
2016년 09월	2,449	27.7	277,106	39.8	1,711	31.8	666,473	55.5	4,160	29.3	943,579	50.5
2016년 10월	2,420	9.2	267,841	12.9	1,846	20.9	728,971	35.8	4,266	14.0	996,812	28.8
2016년 11월	2,312	5.2	251,214	6.8	1,519	8.3	666,382	30.2	3,832	6.4	917,596	22.8
2016년 12월	2,272	1.5	247,595	3.3	1,595	11.0	733,931	39.7	3,867	5.2	981,526	28.3
2017년 01월	2,509	3.6	260,718	10.1	1,682	10.3	708,392	36.9	4,191	6.2	969,110	28.5
2017년 02월	2,485	12.1	257,709	21.8	1,633	9.5	882,538	80.0	4,118	11.1	1,140,247	62.4
2017년 03월	2,534	21.3	267,001	25.5	1,235	-23.3	664,945	9.0	3,768	1.9	931,945	13.3
2017년 04월	2,705	21.9	299,059	23.6	998	-45.5	590,151	-6.9	3,704	-8.6	889,210	1.5
2017년 05월	2,579	15.3	280,167	14.1	1,024	-44.5	655,899	4.8	3,603	-11.7	936,066	7.4
2017년 06월	2,628	13.6	277,425	13.2	1,064	-42.2	688,568	10.2	3,693	-11.2	965,993	11.1
2017년 07월	2,636	9.2	288,843	7.8	1,060	-44.7	693,712	8.8	3,696	-14.7	982,555	8.5
2017년 08월	2,694	5.3	293,421	2.8	1,190	-37.4	885,624	29.8	3,884	-12.9	1,179,045	21.8
2017년 09월	2,631	7.4	301,056	8.6	1,270	-25.8	931,213	39.7	3,901	-6.2	1,232,269	30.6
2017년 10월	2,469	2.0	269,756	0.7	1,222	-33.8	848,835	16.4	3,691	-13.5	1,118,591	12.2
2017년 11월	2,521	9.0	288,565	14.9	1,318	-13.2	938,013	40.8	3,840	0.2	1,226,578	33.7
2017년 12월	2,484	9.3	292,789	18.3	1,416	-11.3	939,070	28.0	3,899	0.8	1,231,859	25.5
2018년 01월	2,681	6.9	310,715	19.2	1,346	-20.0	1,069,343	51.0	4,027	-3.9	1,380,058	42.4
2018년 02월	2,252	-9.4	276,201	7.2	1,292	-20.9	910,758	3.2	3,544	-13.9	1,186,959	4.1
2018년 03월	2,511	-0.9	295,434	10.6	1,578	27.9	1,264,655	90.2	4,089	8.5	1,560,089	67.4
2018년 04월	2,513	-7.1	315,053	5.3	1,619	62.2	1,209,180	104.9	4,132	11.6	1,524,234	71.4
2018년 05월	2,584	0.2	323,141	15.3	1,583	54.6	1,167,402	78.0	4,168	15.7	1,490,543	59.2
2018년 06월	2,560	-2.6	302,264	9.0	1,599	50.2	1,115,050	61.9	4,159	12.6	1,417,313	46.7
2018년 07월	2,529	-4.1	312,762	8.3	1,484	40.1	1,030,074	48.5	4,013	8.6	1,342,836	36.7
2018년 08월	2,553	-5.2	304,056	3.6	1,510	26.9	1,191,919	34.6	4,062	4.6	1,495,976	26.9
2018년 09월	2,462	-6.4	298,456	-0.9	1,520	19.7	1,220,894	31.1	3,982	2.1	1,519,349	23.3
2018년 10월	2,486	0.7	288,221	6.8	1,596	30.6	1,149,972	35.5	4,082	10.6	1,438,194	28.6
2009	12,853		1,441,700		8,410		1,592,700		21,263		3,034,400	
2010	15,255	18.7	2,167,500	50.3	8,178	-2.8	1,749,700	9.9	23,433	10.2	3,917,200	29.1
2011	16,427	7.7	2,416,800	11.5	9,872	20.7	2,445,900	39.8	26,299	12.2	4,862,700	24.1
2012	16,834	2.5	2,367,800	-2.0	12,002	21.6	3,240,100	32.5	28,836	9.6	5,607,900	15.3
2013	17,146	1.9	2,342,900	-1.1	12,437	3.6	3,897,600	20.3	29,583	2.6	6,240,500	11.3
2014	18,557	8.2	2,451,800	4.6	15,766	26.8	5,451,400	39.9	34,323	16.0	7,903,200	26.6
2015	24,587	32.5	2,725,700	11.2	16,081	2.0	5,416,900	-0.6	40,668	18.5	8,142,600	3.0
2016	27,925	13.6	2,990,877	9.7	20,632	28.3	7,617,723	40.6	48,556	19.4	10,608,600	30.3
2017	30,876	10.6	3,376,523	12.9	15,111	-26.8	9,426,960	23.8	45,987	-5.3	12,803,482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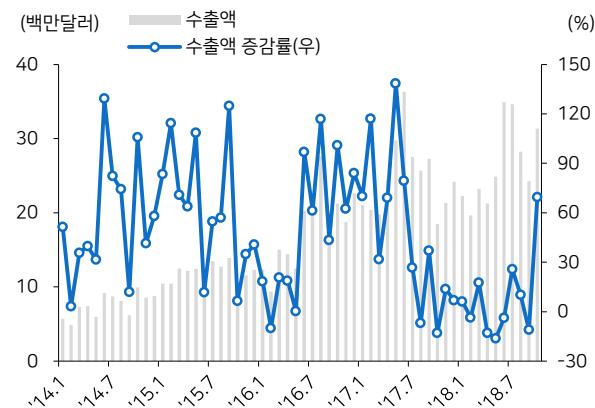
자료: 한국면세점협회,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화장품 수출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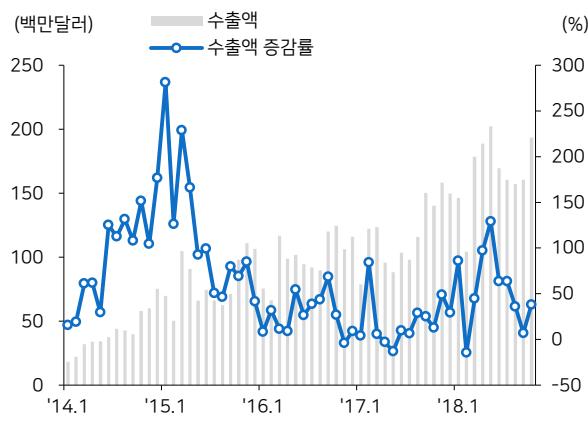
화장품 전체 수출액 및 증가율 -10월 +47.3%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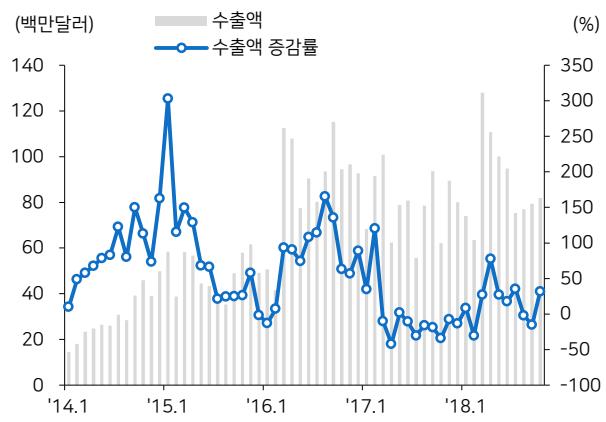
화장품 미국향 수출액 및 증가율 -10월 +69.4% YoY



화장품 중국향 수출액 및 증가율 -10월 +37.9% YoY



화장품 홍콩향 수출액 및 증가율 -10월 +31.8% YoY



자료: KITA,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2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2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지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종가대비 4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5% 이상 ~ +20% 미만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 +5%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미만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96.3%
중립	3.8%
매도	0.0%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